https://doi.org/10.29213/crbs..38.202510.89

사종사제설에 나타난 두 양상*

이재윤
(동국대학교 문학박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삼대부와 유마경소류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의 상위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의가 수립한 사종사제는 삼대부와 유마경소류 곳곳에서 산설되고 있지만, 양 문헌군 사이에는 용어의 사용 형태, 출전과 경증, 특히 『승만경』과 승만사(勝鬘師)의 학설에 대한 수용 태도 등에서 상위가 나타난다.

사종사제에 대해 유마경소류는 이칭을 혼용하고 『열반경』과 『승만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론을 출전과 경증으로 제시하면서 회통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삼대부는 용어를 정리·통일하고 『열반경』 중심의 교의로 재구성하면서 『승만경』과 승만사의 학설을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지의의 생애에서 삼대부 강설 시기(585-595)는 유마경소류 찬술 시기(595-597)에 선행하지만, 현행의 삼대부는 모두 지의의 입적 이후 문인 관정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관정의 찬술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은 유마경소류가 아닌 삼대부의 서술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삼대부의 사종사제설이 지의의 진설 그대로 필록된 것이 아니라 관정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 개작된 내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9094416).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지의 찬 『유마경현소』의 연구와 역주」(2025, 동국대학교)의 제3장 제3절을 소논문 형식에 맞추어 편집하고 수정과 보완을 더한 것이다.

www.kci.go.kr

이처럼 천태교학에 있어 관정의 개입을 배제한 지의의 본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친찬본인 유마경소류를 기준 자료로 삼아 삼대부의 서술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요청되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지의의 사상적 원형에 한층 더 근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지의, 관정, 사종사제, 삼대부, 유마경소류, 열반경, 승만경

Ⅰ. 문제의 소재

지의(智顗, 538-597)가 수립한 생멸·무생·무량·무작의 네 가지 사제, 통칭 '사종사제'는 『중론』의 사구게, 『열반경』의 사불가설, 『대지도론』의 사실단 등과 함께 이른바 화법사교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교증으로 제시되고 있다.[1] 또한 이 사종사제설은 지의의 독자적인 사제론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2]

그런데 지의의 귀속 저작에서 논술되는 사종사제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지의의 친찬(親撰) 혹은 친찬에 준하는 문헌으로 판단되는 유마경소류[3]와 지의의 강설을 이후 문인 관정(灌頂, 561-632)이 여러 차례 수정과 가필을 가하여 편찬한 삼대부 사이에는 사종사제의 용어, 출전, 경증 등에 있어서 양자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의의 귀속 저작 연구에 선구적 성과를 이룩했던 사토 테츠에이(佐藤哲英)는 삼대

---

1) 安藤俊雄 1968, 93.

2) 사종사제설의 성립 과정을 고찰한 연구로는 加藤勉 1990, 197-210 참조.

3) 佐藤哲英의 고증에 따르면, 유마경소류 가운데 『삼관의』와 『사교의』는 친찬, 『유마경현소』와 『유마경문소』는 지의의 구술을 문인이 필록했지만 지의의 감수 하에 편찬된 것으로서 친찬에 준하는 문헌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平井俊榮와 小野嶋祥雄는 유마경소류에도 관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佐藤哲英의 주장에 의문을 던지고 있지만, 근년 村上明也는 平井俊榮와 小野嶋祥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村上明也는 『유마경문소』에는 관정의 개입으로 볼 정황이 일부 나타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삼대부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외 『삼관의』, 『사교의』, 『유마경현소』는 佐藤哲英의 주장과 같이 지의의 친찬으로 판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佐藤哲英와 村上明也의 연구를 수용하여 유마경소류는 모두 지의의 친찬본으로 간주한다. 佐藤哲英 1961, 416-48; 平井俊榮 1985, 45-99; 小野嶋祥雄 2009, 33-60; 村上明也 2024, 53-167.

www.kci.go.kr

부에 대해, “엄밀한 자료 비판을 시도하여 지의의 진설 부분과 문인의 가필 부분을 준별한 뒤가 아니라면 곧바로 지의 교학의 연구 소재가 될 수 없다.”[4]고 평가한다. 유마경소류에 대해서는 “삼대부에 혼재된 관정의 요소와 지의의 사상을 변별하기 위한 척도”[5]라고 평가한다. 즉 이 관점에 따르면, 양 문헌군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의의 본의와 관정의 사견에 의한 수정 및 가필 부분을 구분하여 지의의 사상적 원형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6]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선학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종사제설을 소재로 삼아 유마경소류와 삼대부, 그리고 관정의 찬술에 나타난 상위를 분석하고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먼저, 삼대부 가운데 특히 『법화현의』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은 지의의 진설(眞說)이 아니라 편찬자인 관정에 의해 집필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고,[7] 이에 대해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 역시 지의의 진설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있다.[8] 하지만 두 연구는 논의가 간략하고 일부의 전거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는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먼저 유마경소류와 삼대부, 관정찬술류에 나타난 사종사제의 이칭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용례를 추출하여 상위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사종사제의 경증과 출전, 특히 『승만경』과 그것을 중시한 승만사(勝鬘師)에 대한 유마경소류와 삼대부의 수용 태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에 주목한 두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관정의 찬술에 나타난 사종사제설과 관정의 행장을 토대로 해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지의의 귀속 저작에서 지의의 진설과 관정의 개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또 하나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4) 佐藤哲英 1961, 74.

5) 佐藤哲英 1961, 417.

6)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특정 교학을 소재로 삼아 유마경소류와 삼대부의 상위를 고찰한 주요한 연구로는 佐藤哲英 1981, 428-35; 若杉見龍 1987, 91-108; 村上明也 2024, 293-334 등을 참조.

7) 若杉見龍 1981, 61-70.

8) 斎藤章光 1991, 99-101.

www.kci.go.kr

Ⅱ. 사종사제설에 나타난 상위

1. 사종사제의 이칭

지의의 친찬 또는 친찬에 준하는 유마경소류와 관정이 편찬한 삼대부, 그리고 관정의 찬술 사이에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임에도 문헌군에 따라 이칭의 유형이 구분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9] 그것은 지의와 관정이 구사하는 문투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나아가 관정의 삼대부 수치 방향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사종사제 역시 유마경소류와 삼대부, 그리고 관정찬술류에서 다음과 같이 용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유형 ① : 유마경소류, 삼대부, 관정찬술류에 모두 보이는 유형
유형 ② : 유마경소류에서만 보이는 유형
유형 ③ : 삼대부와 관정찬술류에서만 보이는 유형

먼저 유형 ①은 사종사제 각각을 생멸사제, 무생사제 등으로 호칭하거나 생멸사성제, 무생사성제 등 사제를 사성제로 호칭하는 유형이다. 이 밖에 생멸, 무생 등으로 약칭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이 유형은 유마경소류, 삼대부, 관정찬술류 삼자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다.

반면 유형 ②와 유형 ③은 특정 문헌군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유형 ②는 유마경소류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이다. 사종사제 가운데 특히 ⓐ 무생사제와 ⓑ 무작사제에 대해 몇 가지 이칭이 확인된다. 무생사제는 예컨대 『사교의』에서 ⓐ-1 "此教明因緣卽空無生四眞諦理, 是摩訶衍之初門也.[10]"라고 하는 것처럼 "무생사진제"라고 호칭하거나, ⓐ-2 "前以生滅之理爲諦, 今明不生不滅眞空之理爲諦, 亦名四眞諦也."[11]라고 하여 "사진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며,[12] 『유마경현소』에서는 ⓐ-3

9) 若杉見龍 1987, 91-108; 大竹晉 2017, 761.
10) 『四教義』 卷1, (T. 46, 721c24-25).
11) 『四教義』 卷2, (T. 46, 726a9-11).
12) '사진제'는 통상적인 의미의 '사성제'와 동의어이기도 하다. 지의의 저작 곳곳에서도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성제'와 동의어로 판단되는 경우는 추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www.kci.go.kr

"用無生眞諦無言說道, 斷煩惱也."[13]라고 하여 "무생진제"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제시한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의 이칭에는 공통적으로 '진'이라는 글자가 가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작사제는 『사교의』에서 ⓑ-1 "無作四實諦, 乃是佛之境界."[14]라고 하는 것처럼 "무작사실제", ⓑ-2 "觀四卽得實, 故名四實諦也."[15]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제", 『유마경현소』에서 ⓑ-3 "四一實諦皆不可說, 名聖默然."[16]라고 하는 것처럼 "사일실제", ⓑ-4 "說無作四一實諦, 起法華教也."[17]라고 하는 것처럼 "무작사일실제", 『유마경문소』에서 ⓑ-5 "迷一實諦無作四實之理卽是癡"[18]라고 하는 것처럼 "무작사실"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여기서 ⓑ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실'이라는 글자가 가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형 ③은 삼대부 및 관정찬술류에서만 보이는 유형이다. 예컨대 『마하지관』에서 "若作一實四諦不分別者, 圓觀意也."[19]라고 하거나, 『열반현의』에서 "四一實四諦者, 解苦無苦而有於實 …"[20]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작사제를 "일실사제"로 호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 문헌군에서 유형 ②와 ③의 용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維摩經玄疏』 卷1, (T. 38, 523c26-27).
14) 『四教義』 卷2, (T. 46, 725c12-13).
15) 『四教義』 卷2, (T. 46, 726b7-8).
16) 『維摩經玄疏』 卷1, (T. 38, 523c1).
17) 『維摩經玄疏』 卷1, (T. 38, 522b29-c1).
18) 『維摩經文疏』 卷3, (X. 18, 483a20).
19) 『摩訶止觀』 卷1, (T. 46, 7c22-23).
20) 『大般涅槃經玄義』 卷2, (T. 38, 9a23-24).

www.kci.go.kr

〈표 1〉 사종사제 이칭 유형

유형		유마경소류				삼대부			관정찬술류			계
		삼관의	사교의	유마현소	유마문소	법화현의	마하지관	법화문구	열반현의	열반경소	관심론소	
②	無生四眞諦		6 (5)	4								10 (9)
	無生眞諦		1	1								2
	四眞諦		2									2
	無作四實諦	2	19 (13)	5								26 (20)
	無作四實		(1)		1							1 (2)
	四實諦		1									1
	四一實諦			1								1
	無作四一實諦			1								1
③	一實四諦					5	1		5	1	1	13
계		2	29 (22)	12	1	5	1		5	1	1	

※괄호 안의 숫자는『대정장』의 교이를 따른 결과임.[21]

먼저 유형 ② 가운데 ⓐ 무생사제를 무생사진제, 사진제, 무생진제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제는 '사성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유마경소류에서는 유독 통교의 무생사제에만 '진'을 가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문장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무생사제를 밝힌다면, …중략… 앞에서는 생멸의 이치를 제(諦)로 삼았으나 지금은 불생불멸의 진공의 이치를 밝혀 제로 삼으니, 또한 이름 붙여 '사진제'라고 한다.[22]

21)『사교의』의 교이에 따르면, 유형 ①이 4개소, '無作四實'이 1개소, 그 밖에 '無作實諦'라는 용어가 2개소 확인된다. 여기서 '무작실제' 역시 유형 ②로 분류할 수 있지만, '무작실제'라는 용례는 오직『사교의』의 교이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도표에서 제외하였다.

22)『四教義』卷2, (T. 46, 726a5-11): 二明無生四諦者, …중략… 前以生滅之理爲諦, 今明不生不滅眞空之理爲諦, 亦名四眞諦也.

www.kci.go.kr

통교의 특징이 불생불멸의 진공(眞空)이므로 진공을 의미하는 '진'을 사제에 가필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진'은 네 가지 진리를 의미하는 사진제, 즉 사성제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통상적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부연하자면, 『법화현의』에서는 '사진제'의 용례가 5개소,[23] 『마하지관』에서는 2개소,[24] 『법화문구』에서는 3개소[25]가 확인되지만, 모두 통교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의미의 사성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 무작사제를 무작사실제, 무작사실, 사실제, 사일실제, 무작사일실제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모두 원교의 무작사제의 이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승만경』에서는 무작사제를 밝혔으나 일실제의 결성이 없다. 『열반경』에서는 '무작'이라고 하지 않지만 모두 일실제로써 사제를 결성하였다. 뜻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이상, 지금은 두 경전을 합쳐 명칭을 세운다. 그러므로 '무작사실제'라고 하는 것이다.[26]

'무작사실제'는 『열반경』의 '일실제'와 『승만경』의 '무작사제'를 종합한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무작사실제 외 무작사실, 사실제, 사일실제, 무작사일실제 등의 여타 표현도 모두 동일한 의도에서 '실' 또는 '일실' 등의 표현이 가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③은 무작사제를 '일실사제'라고 호칭하는 경우이다. 이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확인되지 않지만, 후술하듯이 『승만경』의 무작사제를 배제하고 『열반경』의 일실제만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표현이다. 이는 유마경소류에서는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사종사제의 이칭은 유마경소류에서만 나타나는 유형과 삼대부 및 관정찬술류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분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유마경소류에서만 여러 이칭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대부의 강설(585-595)은 유마경소류의 찬술(595-597)보다 선행하지만 현행의 삼대부는 모두 지의의 입적 이후에 성립

---

23) 『妙法蓮華經玄義』 卷3, (T. 33, 707c21); 卷4, (T. 33, 727c18); 卷4, (T. 33, 727c23-24); 卷4, (T. 33, 728b6); 卷4, (T. 33, 732b5-6).

24) 『摩訶止觀』 卷1, (T. 46, 8a21); 卷10, (T. 46, 138c19).

25) 『妙法蓮華經文句』 卷1, (T. 34, 11a25); 卷5, (T. 34, 84a16).

26) 『四教義』 卷2, (T. 46, 726b13-16): 勝鬘經明無作四諦, 無一實結成. 涅槃經不云無作, 皆用一實結成四諦. 義既相關, 今合兩經立名. 故言無作四實諦也.

www.kci.go.kr

된 것이다.[27] 그렇다면 삼대부 강설 당시에 이미 정리되어 있던 용어가 이후 유마경소류 찬술 과정에서 혼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헌 성립의 전후 사정을 미루어보면, 지의는 여러 이칭을 혼용하였지만 이후 관정이 삼대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칭을 정리하고 통일시켰던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유마경소류에서 무생사제와 무작사제에 대해 '진'과 '실' 등의 표현을 가필한 것은, 통교와 원교에 배속되는 각 사제의 특징을 한층 더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의가 유마경소류를 찬술할 당시에도 사종사제를 명확히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하다. 이는 지의의 사유와 일치하는 네 가지 사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28]

이러한 사종사제는 용어뿐만 아니라 출전과 경증 그리고 『승만경』에 대한 수용 태도 등에서도 상위가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사종사제가 집중적으로 논술되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상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사종사제의 출전과 경증

사종사제는 삼대부와 유마경소류 곳곳에서 산설되고 있지만, 유마경소류 중에서는 『사교의』 권2 「변소전(辨所詮)」, 삼대부에서는 『법화현의』 권2下 「경묘(境妙)」와 『마하지관』 권1上 「발보리심(發菩提心)」에서 상세히 논술되고 있다.

『사교의』 권2 「변소전」의 서두에서는 사종사제의 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답을 개설하고 있다.

> 묻는다. 어느 경론에 이 사종사제가 제시되는가?
>
> 답한다. 여러 경전과 논서의 취연(趣緣)을 개략적으로 설한다면, 곳곳에 이 문의(文義)

27) 佐藤哲英의 고증에 따르면, 『법화현의』는 仁壽 2년(602), 『마하지관』은 大業 3년(607)에서 관정의 입적(632) 사이, 『법화문구』는 貞觀 3년(629)에 관정의 첨삭을 거쳐 天寶 7년(748)에 玄朗(673-754)이 재치를 가한 뒤 현행 형태로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佐藤哲英 1961, 302-400. 한편 若杉見龍는 『법화현의』의 성립 시기를 武德 원년(618) 이후, 村上明也는 『마하지관』의 성립 연대의 하한을 大業 10년(614) 무렵으로 추론한다. 若杉見龍 1981, 61-70; 村上明也 2024, 213-32. 구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삼대부의 성립이 모두 지의의 입적(597) 이후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28) 塩入良道는 지의가 三諦三觀에 대해서는 『인왕경』과 『영락경』의 정확한 경문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사종사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종사제의 명칭은 『승만경』이 내용은 『사익경』이 지의가 말하는 사종사제에 가깝다고 본다. 塩入良道 1964, 113-21.

www.kci.go.kr

가 있다. 다만 한 군데에 모으지 않았을 뿐이다. 『대열반경』에서는 혜성행을 밝힌다. 오미의 비유를 근본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례로 분별하여 이 사종사제를 밝힌다. 『승만경』에도 사종사제의 문장이 존재한다. 이른바 유작사제, 유량사제, 무작사제, 무량사제이다. 다만 『열반경』과 『승만경』에서 무량사제를 밝힌 것은 순서가 같지 않으며 의의도 조금 다르다.[29]

『사교의』에서는 어느 특정 경론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경론에 사종사제의 뜻이 있음을 전제한 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열반경』과 『승만경』의 사제설을 거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이 두 경전은 지의의 사종사제설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30] 한편 인용문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두 경전에 대한 지의의 태도이다. 즉 지의는 『열반경』과 『승만경』의 사제설에 순서와 의의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 경전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거나 배척하지 않는 서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는 사종사제의 출전에 대해 『사교의』와는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화현의』 권2下 「경묘」와 『마하지관』 권1上 「발보리심」에서도 사종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사종사제의 출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해당 문장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종사제란 첫째 생멸, 둘째 무생멸, 셋째 무량, 넷째 무작이다. 그 뜻은 『열반경』 「성행품」에 제시된다.[31]

> 사제의 명칭과 양상은 『열반경』 「성행품」에 제시된다. 생멸, 무생멸, 무량, 무작을 이른다.[32]

『사교의』와는 달리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는 『열반경』만을 사종사제의 출전으

---

29) 『四教義』 卷2, (T. 46, 725b29-c7): 問曰. 何處經論, 出此四種四諦. 答曰. 若散說諸經論趣緣, 處處有此文義. 但不聚在一處耳. 大涅槃經明慧聖行. 欲爲五味譬本. 是以次第分別, 明此四種四諦. 勝鬘亦有四種四諦之文. 所謂有作四諦, 有量四諦, 無作四諦, 無量四諦. 但涅槃勝鬘明無量四諦, 詮次不同, 義意少異.

30) 加藤勉 1990, 197-210.

31) 『妙法蓮華經玄義』 卷2, (T. 33, 700c28-701a1): 四種四諦者, 一生滅, 二無生滅, 三無量, 四無作. 其義出涅槃聖行品.

32) 『摩訶止觀』 卷1, (T. 46, 5b14-15): 四諦名相出大經聖行品. 謂生滅無生滅無量無作.

www.kci.go.kr

로 제시하고 있으며, 『승만경』을 비롯한 여타의 경론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종사제의 출전에 대한 각 문헌의 이 같은 태도는 사종사제 각각에 대한 경증(經證)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사교의』에서는 다양한 경론을 인용하며 사종사제 각각의 존립 근거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은 『열반경』을 중심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서술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교의』, 『법화현의』, 『마하지관』에 제시되는 사종사제의 경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종사제의 경증

<table>
<tr><th></th><th>『사교의』
(595년 찬술)</th><th>『법화현의』
(593년 강설/
602년 성립 추정)</th><th>『마하지관』
(594년 강설/
607~32년 성립 추정)</th></tr>
<tr><td>생멸사제</td><td>『법화경』
『승만경』
『유교경』
『열반경』
수인(數人)(=『아비담』)
『성실론』</td><td>『유교경』
『열반경』
『잡아비담심론』</td><td rowspan="4">『열반경』</td></tr>
<tr><td>무생사제</td><td>『사익경』
『열반경』
『승만경』</td><td rowspan="3">『열반경』</td></tr>
<tr><td>무량사제</td><td>『열반경』</td></tr>
<tr><td>무작사제</td><td>『열반경』
『승만경』</td></tr>
</table>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교의』에서는 도합 7종의 경론(『승만경』, 『열반경』, 『법화경』, 『유교경』, 『사익경』, 수인, 『성실론』)을,[33] 『법화현의』에서는 3종의 경론(『열반경』, 『유교경』, 『잡아비담심론』)을 인용하며 사종사제 각각을 인증하고 있다. 한편 『마하지관』에서는 "사제의 명칭과 양상은 『열반경』「성행품」에 제시된다."고 서두에서 출전을 밝힐 뿐, 사제 각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증을 들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사교의』에서는 다양한 경론을 사종사제의 경증으로 채용하며 그것을 적극

33) 다만 『사교의』는 수인(『아비담』)과 『성실론』에 대해 "此生滅四諦義, 備如數人成論分別. 今不具明."(T. 46, 726a4-5)이라고 서술할 뿐 구체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www.kci.go.kr

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술 태도는 앞서 제시한 출전에 대한 문답요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반면 『법화현의』에서는 세 종의 경론만을 생멸사제에 한정해서 제시하고, 나머지 무생, 무량, 무작사제에 대해서는 『열반경』만을 경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마하지관』 역시 『열반경』만을 사종사제의 출전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법화현의』와 근사한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이 모두 지의의 진설을 그대로 편찬한 문헌이라면, 지의는 『법화현의』의 강설(593)에서 『유교경』, 『열반경』, 『잡아비담심론』의 세 경론을 토대로 사종사제를 수립한 후, 『마하지관』의 강설(594)에서는 『열반경』만을 전거로 들었다가, 『사교의』를 찬술할 때(595)는 다시 『승만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론을 통해 사종사제를 입증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교의』에서 사종사제의 주요한 출전과 경증으로 제시되는 『승만경』이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는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종생사(二種生死)나 오주번뇌(五住煩惱) 등 『승만경』 고유의 교설이 삼대부에도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음은 지적된 바 있다.[34] 그런데 『승만경』의 사제설만큼은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이 의도적으로 『승만경』의 사제설을 배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삼대부의 편찬자 관정은 『법화현의』를 다듬을 때 『사교의』를 적극적으로 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35] 그럼에도 관정은 『사교의』의 사종사제설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종사제의 출전과 경증에 대한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의 태도는 지의의 진설이라기보다 관정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지의가 다양한 경론을 근거로 논증했던 사종사제가,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는 관정에 의해 『열반경』 중심의 교의로 재정립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종사제의 출전과 경증에 대한 태도의 상위는, 특히 『승만경』과 그것을 중시했던 승만사(勝鬘師)의 학설에 대한 지의와 관정의 수용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승만경』과 승만사에 대한 『사교의』와 『법화현의』의 수용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

34) 藤井教公 1996, 411-22.

35) 佐藤哲英 1961, 326-30; 村上明也 2024, 171-99.

www.kci.go.kr

3. 『승만경』과 승만사(勝鬘師)의 사제설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사교의』의 수용태도

전게한 인용문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사교의』에서 『승만경』의 사제설과 관련하여 지의의 견해가 피력되는 문장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열반경』에서는 혜성행을 밝히니 오미의 비유를 근본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례대로 분별하여 이 사종사제를 밝힌다. 『승만경』에도 사종사제의 문장이 존재한다. 이른바 유작사제, 유량사제, 무작사제, 무량사제이다. 다만 『열반경』과 『승만경』에서 무량사제를 밝힌 것은 순서가 같지 않으며 의의도 조금 다르다.[36]
>
> ② 『승만경』에서는 무작사제를 밝혔으나 일실제의 결성이 없다. 『열반경』에서는 '무작'이라고 하지 않지만 모두 일실제로써 사제를 결성하였다. 뜻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이상, 지금은 두 경전을 합쳐 명칭을 세운다. 그러므로 '무작사실제'라고 하는 것이다.[37]
>
> ③ 무명혹과 항사혹에 기준하여 사제법의 사수(事數)로 무량을 논한다면, 별교 소전의 무량이지 무작이 아니다. 만약 법성에 기준하여 사제의 사제의 무량을 밝히면, 원교 소전의 무량으로, 무량은 곧 무작이다. 『대열반경』에서 가섭에게 답하여 무량사제를 밝힌 것은 바로 사수의 무량에 기준한 것이다. 이는 별교의 소전이다. 문수에게 답하여 사제를 밝힌 것은 무작사실제를 밝힌 것이다. 『승만경』에서 밝힌 이종사제(二種四諦)는 같고 다름을 확정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38]

세 인용문에서는 『열반경』과 『승만경』의 사제설의 차이에 대한 지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경전에 대한 지의의 입장이다. 지의는 『열반경』과 『승만경』의 사제설에 대해 "순서가 같지 않으며 의의도 조금 다르다."(①)며 양자

---

36) 『四教義』 卷2, (T. 46, 725c3-7): 大涅槃經明慧聖行, 欲爲五味譬本. 是以次第分別, 明此四種四諦. 勝鬘亦有四種四諦之文. 所謂有作四諦, 有量四諦, 無作四諦, 無量四諦. 但涅槃勝鬘明無量四諦, 詮次不同, 義意少異.

37) 『四教義』 卷2, (T. 46, 726b14-16): 勝鬘經明無作四諦, 無一實結成. 涅槃經不云無作, 皆用一實結成四諦. 義既相關, 今合兩經立名. 故言無作四實諦也.

38) 『四教義』 卷2, (T. 46, 726b20-26): 若約無明恒沙, 四諦法事數論無量, 卽是別教所詮無量非無作. 若約法性明四諦無量, 卽是圓教所詮無量, 無量卽無作也. 大涅槃經答迦葉, 明無量四諦, 正約事數無量. 此別教所詮也. 若答文殊明四諦, 卽是明無作四實諦也. 勝鬘經明二種四諦, 一異未可定判.

www.kci.go.kr

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승만경』에서 밝힌 이종사제는 같고 다름을 확정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③)고 하며 『열반경』과 『승만경』 가운데 어느 것을 우위에 둔다든지 배척한다든지 등의 가치 판단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나아가 "두 경전을 합쳐 명칭을 세웠다."(②)고 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열반경』과 『승만경』을 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화현의』의 수용태도

반면 『법화현의』에서는 『승만경』과 승만사의 학설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법화현의』「경묘」에서는 사종사제를 본격적으로 논술하기 앞서, 다음과 같이 『승만경』에 대한 어떤 법사[有師]의 해석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 어떤 법사는 『승만경』의 무변성제는 이승의 유여에 대비하여 부처의 구경을 드러낸다고 해석한다. 이승은 유작사성제이다. 작은 유량사성제이다. 무작사성제는 무량사성제이다. 작과 무작은 행에 입각한 것이고 양과 무량은 법에 입각한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비록 네 가지 명칭을 내세우더라도 다만 두 가지 뜻만을 이룰 뿐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바가 아니다.[39]

『승만경』「법신장」에서는 사제를 유작사제와 무작사제로 대분하고 유작사제와 유량사제, 무작사제와 무량사제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40] 이에 대해 '어떤 법사'는 유작과 무작은 행(行)에, 유량과 무량은 법(法)에 기준하여 분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 『법화현의』는 사종사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평하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배척하고 있다.

담연(湛然, 711-782)에 따르면, 이 '어떤 법사'는 '승만사'이다.[41] 승만사가 실존했던 학

39) 『妙法蓮華經玄義』 卷2, (T. 33, 700c18-28): 有師解勝鬘無邊聖諦, 對二乘有餘, 彰佛究竟. 二乘是有作四聖諦. 作者有量四聖諦也. 無作四聖諦者, 無量四聖諦也. 作無作就行, 量無量就法. …중략… 如此釋者, 雖唱四名, 但成二義. 非今所用.

40)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卷1, (T. 12, 221b21-29): 何等爲說二聖諦義. 謂說作聖諦義, 說無作聖諦義. 說作聖諦義者, 是說有量四聖諦. 何以故. 非因他能知一切苦, 斷一切集, 證一切滅, 修一切道. 是故世尊, 有有爲生死, 無爲生死. 涅槃亦如是. 有餘及無餘. 說無作聖諦義者, 說無量四聖諦義. 何以故. 能以自力知一切受苦, 斷一切受集, 證一切受滅, 修一切受滅道.

41) 『法華玄義釋籤』 卷5, (T. 33, 849b18-20): 初文者, 有勝鬘師釋彼經中聖諦之義, 名爲無邊. 彼經但與二乘對辨, 故唯得立作無作名.

www.kci.go.kr

파였는지는 현존 자료상 명확하지 않지만, 이 '어떤 법사'의 학설은 혜원(慧遠, 523-592)의 사제 해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2] 그렇다면 이 '어떤 법사'의 학설로 인용되는 해석은 혜원 또는 그가 속한 지론학파 계통의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3]

이처럼 『법화현의』에서는 사종사제를 논술하기 앞서 『승만경』의 사제설과 그것을 중시한 당시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법화현의』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종사제 각각에 대해 논술한 뒤, 재차 『승만경』과 그것에 대한 지론학파 계통의 해석을 장문에 걸쳐 비판하고 있다.[44] 그 논의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선학의 역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전개되고 있다.[45] 첫째, 사제 가운데 하나의 멸제(滅諦)만을 영원[常], 진리[諦], 의지처[依]라고 설하는 『승만경』의 경문을 인용하고, 둘째, 그것에 대한 지론종 남도파의 달마울다라(達磨鬱多羅), 즉 법상(法上, 495-580)의 비판적 의문을 개설한 뒤, 셋째, 승만사 또는 지론학파 계통의 추가적 해석을 제시하며 『승만경』의 교설을 보다 명료히 하고 있다. 그런 뒤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한다.

> 이제 비판하겠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의 제(=滅諦)가 드러나면 무작의 제이지만 세 가지 제(=苦諦·集諦·道諦)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작의 제가 아니다. 하나는 요의이지만 세 가지는 요의가 아닌 것이다. 마땅히 알라. 『승만경』에서 설한 내용은 차례를 설하여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르는 격별되고 원융하지 못한 것이다. 즉 무량사제에 속하는 무작이지 발심과 필경의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 무작이 아니다. 『열반경』에서는 "제가 있고 실이 있다."고 하였다. 마땅히 알라. 네 가지는 모두 진리, 진실, 영원에 부합하는 것이다.[46]

인용문에 따르면, 『열반경』과 달리 『승만경』의 사제설은 각각이 구분되며 그것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작'이라고 하더라도 원교의 원융한 무작이

---

42) 加藤勉 1990, 199-200; 『大乘義章』 卷3, (T. 44, 515a17-27).

43) 지론학파 수증론의 맹아로서 『승만경』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상민 2018, 37-99 참조.

44) 『妙法蓮華經玄義』 卷2, (T. 33, 701b12-c3).

45) 菅野博史 2011, 103; 大竹晉 2017, 800-2.

46) 『妙法蓮華經玄義』 卷2, (T. 33, 701b27-c3): 今難. 若爾, 一諦顯, 是無作諦, 三諦未顯, 非無作諦. 一是了義, 三非了義. 當知勝鬘所說, 說於次第, 從淺至深, 歷別未融. 乃是無量四諦中之無作, 非是發心畢竟二不別之無作. 涅槃云, 有諦有實. 當知四種, 皆稱諦稱實稱常也.

www.kci.go.kr

아니라 어디까지나 별교에서 설시되는 무량사제에서의 무작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승만경』과 지론학파의 학설은 지의의 사교 체계 가운데 별교에 위치가 부여되고 있으므로,[47] 『법화현의』에서 『승만경』의 사제설과 그것에 대한 지론학파 계통의 해석이 비판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그 논조에 있어서는 『사교의』와 『법화현의』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감지된다. 즉 『사교의』는 『열반경』과 『승만경』을 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법화현의』는 『승만경』을 배척하고 『열반경』의 사제설만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지의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원교를 선양하고자 하였지만, 여타의 경전이나 학파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포용적이면서 종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승만경』의 경우에도, 지의는 그것에 대한 주석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승만경』 고유의 교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교학 체계에 도입하고 있다.[48] 또한 지론학파 등 타 학파의 학설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도, 그 학설을 사실단(四悉檀)으로 변별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았던 것이 지의의 일관된 태도였다.[49] 그런데 『법화현의』에서는 사종사제를 논하기 전후 두 차례나 『승만경』과 승만사에 대한 해석을 거듭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교의』에 보이는 지의의 회통적 태도와는 상이하며, 매우 이질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것이다.

Ⅲ. 사종사제의 변용

1. 기존 견해와 문제점

이상과 같이 유마경소류와 삼대부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에는 이칭, 출전, 경증, 『승만경』에 대한 수용 태도 등에서 양자간 차이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대부, 특히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은 관정에 의해 집필된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것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두 연구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논자의

47) 多田孝正 1982, 281; 藤井教公 1996, 419-20.
48) 藤井教公 1996, 411-22.
49) 池田魯參 1982, 1-24.

www.kci.go.kr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와카스기 켄류(若杉見龍)[50]는 관정의 『열반현의』에 논술되는 사종사제설에서 『승만경』이 거론되고 있으므로,[51] 관정이 『열반현의』를 찬술할 당시(614-618) 『승만경』의 사제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 뒤에 『열반현의』에서 『법화현의』에 상세한 서술 내용을 양도하는 개소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종사제설에 대해서는 『법화현의』에 서술 내용을 전혀 양도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현행의 『법화현의』가 『열반현의』에 선행하여 성립하였다면, 관정은 사제설에 대해서도 『법화현의』에 서술 내용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언급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와카스기는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은 관정이 『열반현의』를 찬술한 뒤 『법화현의』에 가필한 부분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현행 『법화현의』의 성립은 『열반현의』의 성립 이후가 될 것이라는, 『법화현의』의 성립 시기에 관한 새로운 가설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토 쇼코(齋藤章光)[52]는, 사종사제설이 상술되고 있는 『사교의』 권2 「변소전」에 대응하는 『유마경현소』 권3 「사교분별」의 「변소전」에는 서술 내용이 대폭 생략되고 있다는 점과, 『유마경현소』 권6에서 사종사제의 서술 내용을 "법화소"에 양도하고 있다는 점[53]을 지적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의는 『유마경현소』 찬술에 매진하고 있었던 무렵(597)에 『사교의』와 『법화현의』의 상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법화현의』를 채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화현의』에 나타난 사종사제설 역시 지의의 진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두 견해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견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논자는 와카스기의 논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처럼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을 지의의 진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교의』의 상세한 서술 내용이 『유마경현소』의 대응 부분에서 생략되고 있다

---

50) 若杉見龍 1981, 61-70.

51) 『大般涅槃經玄義』 卷2, (T. 38, 9a29-b5): 强欲分別令易解故, 總唱一實四諦, 卽是名也. 取一滅諦, 卽是其體. 故勝鬘云, 一依者, 卽一滅諦也. 道諦以當其宗. 取道諦所治, 以當其用. 調御心喜, 說此眞諦, 卽名爲教. 雖差別說, 只是一無差別法耳.

52) 齋藤章光 1991, 99-101.

53) 『維摩經玄疏』 卷6, (T. 38, 560a20-23): 小乘明有作四聖諦, 大乘明無作四聖諦. 於是二間, 更立二種四諦. 謂無生四眞諦無量四諦, 合爲四種四諦. 並是明因果之義. 具出涅槃. 解釋顯在法華疏也.

www.kci.go.kr

는 사이토의 지적은, 일견 『유마경현소』의 찬술 당시 지의가 『사교의』의 사종사제설을 부정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교의』, 『삼관의』 등의 별행본과 『유마경현소』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이는 특이한 양상은 아니다. 별행본에서 『유마경현소』로 진전되면서 별행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축약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54] 또한 이러한 축약은 지의가 『유마경현소』를 찬술할 당시 별행본이 이미 독립된 문헌으로써 활용되고 있었고,[55] 그러한 별행본을 전제로 하여 『유마경현소』를 찬술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56] 따라서 『유마경현소』에서 서술 내용이 축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의의 교학적 태도가 변모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사이토는 『유마경현소』 권6에서 사종사제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사교의』가 아닌 『법화현의』에 양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이토가 지적하는 부분 외에도 『유마경현소』에는 『법화현의』에 서술 내용을 양도하는 개소가 추가적으로 4곳이 확인된다.[57] 그런데 이 양도 개소는 모두 『유마경현소』의 권6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또한 이 당시 지의가 참조했던 『법화현의』가 과연 현행의 『법화현의』와 동일한 것이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유마경현소』 권6은 오중현의의 별석 중 체·종·용·교를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유마경현소』에서 지의의 교학 체계의 핵심은 오중현의의 통석에 해당하는 권1(사실단)과 별석 중 석명에 해당하는 권2~5(삼관, 사교, 본적)에서 집중적으로 상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사제설에 대한 지의의 태도 변화가 사실이라면, 『유마경현소』 권3 「사교분별」의 「변소전」, 즉 사종사제를 핵심 주제로 논술하는 개소에서 『법화현의』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한 서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과문에서는 『법화현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후 종현의(宗玄義)의 세부 과문에서 사종사제를 간략히 거론하며 '법화소'에 서술 내용을 양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차적인 개소에서 나타난 지시만으로 사종사제에 대한 지의의 교학적 태도가 변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토 테츠에이(佐藤哲英)의 고증에 따르면, 『법화현의』는 ① 청기본(聽記本, 593)

54) 佐藤哲英 1961, 429-38; 菅野博史 2012, 299-333; 宇衛康弘 1984, 61-70; 山口弘江 2017, 190-98; 横溝靖彦 2019, 283-303.

55) 佐藤哲英 1961, 432-33.

56) 宇衛康弘 1984, 68.

57) 『維摩經玄疏』 卷6, (T. 38, 560c23); (T. 38, 561c17); (T. 38, 561c27); (T. 38, 562b19).

www.kci.go.kr

→ ② 정리본(整理本, 593~597) → ③ 수치본(修治本, 597~602)의 세 단계를 거쳐 현행의 형태로 완성되었다.[58] 이러한 성립 사정에 따르면 『유마경현소』 찬술 시기에 지의가 참조했던 『법화현의』는 ② 정리본에 해당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저술 형태를 갖춘 것"[59]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아직 관정의 수정과 편집이 더해지지 않은 미완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화현의』와는 상당한 내용적 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비록 『유마경현소』 권6에서 사종사제설에 대한 서술 내용을 『법화현의』에 양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유마경현소』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보면 『법화현의』가 『유마경현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법화현의』조차도 현행본과는 다른 문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의가 『유마경현소』를 찬술할 당시 『사교의』가 아닌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을 채택했다고 보는 사이토의 논거에는 그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와카스기의 주장 역시 사종사제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정의 『열반현의』에 서술되는 사종사제설에서 "승만경"이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을 관정의 가필로 논단하고 있으므로, 그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이,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은 『사교의』와 달리 『승만경』과 승만사에 대한 배척 태도가 뚜렷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타 경전과 학파에 대한 지의의 포용적 태도와 이질적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법화현의』의 사종사제설이 문헌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 관정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둘 때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열반현의』의 사종사제설

관정 찬 『열반현의』에도 사종사제를 집중적으로 논술하는 단락이 있다.[60] 그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교의』나 『법화현의』, 『마하지관』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술 태도는 『사교의』보다는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지면 관계상, 원교의 일실사제(=무작사제)에 대해 논술하는 대목만을 제시하고 검토한다.

---

58) 佐藤哲英 1961, 331-37.

59) 佐藤哲英 1961, 332.

60) 『大般涅槃經玄義』 卷2, (T. 38, 9a13-b5).

www.kci.go.kr

> 넷째 일실사제란, 고에 고가 없지만 실상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지 멸에도 멸이 없지만 실상이 있다고 이해한다. 실상이란 고도 아니며 고의 원인도 아니며 고의 다함도 아니며 고의 대치도 아니지만 하나의 실상이다. 내지 멸도 이와 같다. 이것을 이름 붙여 '일실사제'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경』과 같다.[61]

인용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주목된다. 첫째, '일실사제'라는 무작사제를 호칭하는 용어이다. 전술했듯이, '일실사제'라는 표현은 지의의 유마경소류에서는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삼대부와 관정찬술류에서만 확인되는 표현이다. 특히 『열반현의』에서는 원교의 사제에 대해 '무작'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일실사제'라는 표현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실사제'는 관정 특유의 표현이라고 보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관정이 『승만경』의 내용과 그 해석을 상기시키는 '무작'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법화현의』에서 대승의 궁극적 사제를 '무작사제'라고 규정하는 『승만경』과 지론학파 계통의 해석을 엄격히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62]을 미루어보면, 관정은 『승만경』의 내용과 그 해석을 상기시키는 '무작'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열반경』의 '일실제'만을 강조하고자 '일실사제'라는 표현을 고안해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사종사제설의 출전이다. 인용문의 말미에는 "구체적으로 『경』과 같다."고 하며 일실사제의 출전으로 『경』을 들고 있다. 일실사제뿐만 아니라 생멸, 무생, 무량사제를 서술하는 개소에서도 각 사제에 대해 논한 뒤 말미에 "『경』과 같다."라는 문장이 부기되어 있다. 여기서 『경』의 구체적인 제명은 명시되지 않지만 『열반현의』는 『열반경』의 주석서인 만큼 『경』은 『열반경』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종사제 출전과 경증에 대한 이 같은 관정의 태도는 『사교의』보다는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열반경』만을 출전으로 들고 있는 『마하지관』과는 전적으로 일치하는 태도이다.

현행 『마하지관』의 성립 연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대업(大業) 3년(607)에서 관정의 입적(632)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3] 추정연대의 상한과 하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무덕(武德) 원년(618)에 성립된 『열반현의』와의 전후 문제는 쉽게 결정할

---

61) 『大般涅槃經玄義』 卷2, (T. 38, 9a23-27): 四一實四諦者, 解苦無苦而有於實. 乃至解滅無滅而有於實. 實者非苦非苦因, 非苦盡非苦對而是一實. 乃至滅亦如是. 是名一實四諦. 具如經.

62) 앞의 각주46 참조.

63) 佐藤哲英 1961, 398.

www.kci.go.kr

수 없지만,[64] 사종사제의 출전에 한해서는 『열반현의』와 『마하지관』은 상호 동일한 서술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열반현의』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은 지의의 친찬인 유마경소류가 아니라, 관정 자신이 편찬한 『법화현의』, 『마하지관』과 같은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관정의 술회

이처럼 관정은 사종사제설에 대해 『열반경』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렇다면 관정의 찬술과 관정이 편찬했던 『법화현의』, 『마하지관』에서만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의문이 남는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관정은 『법화현의』를 편찬할 때[65]나 자신의 찬술에서도 『사교의』를 적극 의용하지만,[66] 사종사제설에 대해서만큼은 『사교의』의 내용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견에 의하면, 관정이 이와 같은 사종사제설의 상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개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관정이 『열반현의』와 『열반경소』를 찬술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 『열반현의』 말미의 「소연기(疏緣起)」에는 그 이유를 유추할 만한 다음과 같은 관정의 술회가 보인다.

> [지의에게] 이 책(=『열반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를 바랐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 … 중략… 나는 [지의의] 묘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으며 회장(灰場=지의의 묘)에 엎드려 『석게』(=『열반경』)을 구송하고 허물을 생각하며 세상을 끝마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함을 이고 봉을 메고 서쪽으로 궐정(闕庭)을 생각하며 사사로움을 버리고 조정에 돌아왔다. 길을 떠난 지 8년째, 일엄사(日嚴寺)에서 쟁론하였지만 쫓겨나 함양에 들어갔고 도림(桃林)의 물가를 마주했다. 도망치다가 밤에 도반을 잃었고, 참소를 당해 무당 취급을 받았으며, 붙잡혀서 유계(幽薊)로 끌려갔다. 얼어붙

64) 村上明也는 "灌頂 撰·湛然 再治"로 전승되어 온 『열반경소』에는 현행본에 가까운 형태의 『마하지관』이 참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정이 『열반현의』와 『열반경소』의 집필에 착수했던 大業 10년(614) 무렵에는 완성된 형태의 『마하지관』이 참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村上明也 2024, 213-32. 다만 『열반경소』에서 관정의 집필 부분과 담연의 재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5) 佐藤哲英 1961, 326-30; 村上明也 2024, 171-99.

66) 佐藤哲英 1981, 436-65. 佐藤哲英는 "지의 설·관정 기"로 전승되어 온 『사념처』에 『사교의』가 유력한 지남서로 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헌 대조를 통해 밝히고, 이를 주된 논거로 『사념처』를 관정의 찬술로 판단한다.

www.kci.go.kr

은 강을 건너 북쪽으로 건너가는데, 말은 빠져 죽었지만 나는 간신히 생존하였다. 위험에 닥쳐 얇은 얼음을 밟듯이, 살아 있지만 사지를 지나는 듯하였다. 두려워하며 긍긍했던 것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67]

지의가 입적한 뒤, 관정은 진왕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8년간 장안에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일엄사에서 쟁론하여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추방되어 유랑하며 고생했던 경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술회하고 있다.[68]

관정이 조정에 왔던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지의의] 묘소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을 미루어보면, 그 시기는 지의의 입적 후 개황(開皇) 18년(598)에 『유마경소』를 헌상했던 시기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69] 그렇다면 8년을 장안에서 머물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쟁론은 개황 18년에서 대업(大業) 원년(605) 사이의 사건일 것이다. 당시 일엄사는 진왕의 외호 하에 전국의 고승을 초빙했던 사찰로서,[70] 경론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차례 쟁론이 있었던 사실이 여타 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71]

그렇다면 관정이 "일엄사에서 쟁론하였다"고 술회한 것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엄사에서 벌어졌던 쟁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관정은 쟁론에서 패배하여 일엄사

67) 『大般涅槃經玄義』 卷2, (T. 38, 14c3-10): 希聞斯典, 竟不獲聞. …중략… 余乃掃墓植樹, 更伏灰場, 口誦石偈, 思愆畢世. 事不由已, 迫不得止, 戴函負封, 西考闕庭, 私去公還. 經塗八載, 日嚴諍論, 追入咸陽, 值桃林水. 奔而夜亡其伴, 又被讒爲巫, 收往幽薊. 乘氷濟北, 馬陷身存. 臨危履薄, 生行死地. 悼慄兢兢, 寧可盡言.

68) 다만 인용문에서 "日嚴諍論, 追入咸陽"과 "被讒爲巫, 收往幽薊"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자의 번역처럼 "관정이 일엄사의 쟁론에서 쫓겨나 [위수를 건너] 함양에 들어갔고, "[쫓기는 과정에서] 참소를 당해 무당 취급을 받아 붙잡혀 유계로 갔다"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二宮守人 1981, 359; 平井俊榮 1985, 68. 반면 "追入咸陽"의 '追入'을 "어느 사찰에 추가되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咸陽'은 장안의 옛 지명으로 해석하여 관정이 쟁론에서 패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被讒爲巫, 收往幽薊"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정이 大業 7년(611)에 양제를 알현하기 위해 涿郡으로 가던 와중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坂本廣博 1977, 144-46; 木村周誠 1991, 98-101. 이처럼 이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료의 한계상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經塗八載"라는 시기가 제시된 직후 "日嚴諍論"으로 연결된다는 점, 또 이후에 이어지는 불운한 내용에 나타난 사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미루어보면, 전자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는 전자의 해석을 따른다.

69) 『涅槃經玄義文句』 卷2, (X. 36, 40a), "載(→戴?)函者, 送浮(→淨?)名疏入上都也." 『열반경현의문구』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坂本廣博 1974, 115-20; 이재윤 2025, 212-14. 한편, 平井俊榮는 開皇 18(598)년 또는 仁壽 2년(602) 두 시기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한다. 平井俊榮 1985, 68.

70) 山崎宏 1967, 100-4.

71) 예컨대 『續高僧傳』 卷9, 「智脫傳」(T. 50, 499a13-25)에서는 仁壽 2년(602) 일엄사에서 智脫(541-607)과 吉藏(549-623) 사이에 벌어졌던 대론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www.kci.go.kr

를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것이다. 당시 다수의 삼론계 학승이 일엄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72] 관정의 대론 상대를 길장 혹은 삼론학파 계통의 인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지만,[73] 그것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론 상대 가운데 『승만경』을 중시한 승만사, 즉 지론학파 계통의 인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정은 지의의 입적 후 일엄사에서 타 학파와 쟁론하여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후 관정에게 다른 학파에 대한 반감과 적의를 심어 주었던 주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의의 친찬인 『사교의』와 달리 관정이 편찬했던 『법화현의』에서 『승만경』과 그것에 대한 지론학파 계통의 해석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점이나, 『열반경』만을 사종사제의 출전으로 삼는 『마하지관』과 같은 태도를 『열반현의』에서 답습하는 것도, 또 지의도 사용했던 '무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도, 관정이 지의의 입적 후 겪었던 고초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Ⅳ. 결론

이상, 사종사제설에 나타난 상위를 검토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였다. 논의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정이 지의의 강설을 필록하고 그것을 지의의 입적 후 편찬했던 삼대부와 달리, 지의의 친찬본인 유마경소류에서는 사종사제의 이칭이 혼용되고 있다. 지의의 생애에서 유마경소류의 찬술 시기보다 삼대부의 강설 시기가 선행하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지의가 삼대부의 강설 당시에 정리·통일된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 유마경소류를 찬술하면서 이칭을 혼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사교의』 권2 「변소전」, 『법화현의』 권2下 「경묘」, 『마하지관』 권1上 「발보리심」에서는 사종사제가 집중적으로 논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교의』에서는 『열반경』과 『승만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론을 사종사제의 경증으로 제시하지만, 『법화현의』에서는 『승만경』이 배제되고 『마하지관』에서는 『열반경』만을 사종사제의 출전으로 들고 있다.

셋째, 『사교의』에서는 『승만경』의 사제설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열반경』의 사제

72) 平井俊榮 1976, 302-4.
73) 平井俊榮 1985, 69-70.

www.kci.go.kr

설과 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반면 『법화현의』에서는 『승만경』과 그것에 대한 승만사의 해석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다.

넷째, 관정이 찬술한 『열반현의』에서는 『마하지관』과 마찬가지로 사종사제의 출전으로 『열반경』만을 들고 있다. 또한 원교의 사제를 호칭하는 '무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일실사제'라는 용어는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유마경소류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의의 친찬인 유마경소류에서 논술되는 사종사제설은, 관정이 편찬한 『법화현의』와 『마하지관』, 그리고 관정이 찬술한 『열반현의』와 용어, 출전, 경증, 『승만경』에 대한 수용 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에 나타난 사종사제설은 관정의 『열반현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의 사종사제설이 지의의 진설 그대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인 관정에 의한 수정과 가필이 상당 부분 더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의의 친찬과 달리, 관정이 편찬한 문헌과 관정의 찬술에서만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그것을 명확히 밝힐 문헌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정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의의 입적 후 왕명을 받고 장안으로 갔던 관정은 일엄사에서 타 학파와 쟁론하였다. 그러나 관정은 쟁론에서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었다. 이는 관정에게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고초를 겪었던 관정 자신의 사감이 자신의 찬술인 『열반현의』와 그가 편찬한 『법화현의』, 『마하지관』 등에 투영되었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관정이 필록하고 편찬했던 지의의 상당수 저작에서, 지의의 진설 부분과 관정의 첨삭 부분을 준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년 지의의 문헌 및 사상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지의의 진설과 관정의 요소를 변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의의 친찬으로 평가되는 유마경소류를 기준 자료로 삼아 교학 내용의 상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유마경소류와 삼대부에는 공통적으로 논술되는 교학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양자간 비교분석을 통해 관정이 관여하지 않은 지의의 본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는 현존 자료상 가장 유효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종사제'라는 교학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고,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특정 교학에 나타난 유마경소류와 삼대부의 상위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 문헌군의 방대한 분량상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1차 자료

『觀心論疏』(T46)

『大般涅槃經玄義』(T38)

『大般涅槃經疏』(T38)

『摩訶止觀』(T46)

『妙法蓮華經玄義』(T33)

『妙法蓮華經文句』(T34)

『法華玄義釋籤』(T33)

『四教義』(T46)

『續高僧傳』(T50)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T12)

『涅槃經玄義文句』(X36)

『維摩經文疏』(X18)

『維摩經玄疏』(T38)

2차 자료

이상민. 2018.『6세기 북조불교 연구』. 서울: 해조음.

이재윤. 2025.「도섬(道暹)의 생애와 저작: 기초 연구 및 진위 검토」.『보조사상』71: 201-231.

_____. 2025.「지의 찬『유마경현소』의 연구와 역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安藤俊雄. 1968.『天台學』. 京都: 平樂寺書店.

池田魯參. 1982.「天台教學と地論攝論學」.『佛教學』13: 1-24.

宇衛康弘. 1984.「『三觀義』と『維摩經玄疏』卷二「三觀解釋の比較對照」.『駒澤大學大學院佛教學研究會年報』17: 61-70.

大竹晉. 2017.「地論宗斷片集成」.『지론종 연구』. 서울: 씨아이알.

小野嶋祥雄. 2009.「『天台維摩疏』智顗親撰說への疑義 -吉藏撰述書との比較を通して」.『岐阜聖德學園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9: 33-60.

加藤勉. 1990.「四種四諦の成立過程について」.『天台教學の研究: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 東京: 山喜

www.kci.go.kr

房佛書林.
菅野博史. 2011.『新國譯大藏經 中國撰述部: 法華玄義 I 』. 東京: 大藏出版.
_____. 2012.『南北朝·隋代の中國佛教思想研究』. 東京: 大藏出版.
木村周誠. 1991.「章安尊者の行迹について」『天台學報』 33: 98-101.
齋藤章光. 1991.「四種四諦における問題點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39(2): 99-101.
坂本廣博. 1974.「涅槃經玄義文句について -道邃作を疑う」『天台學報』 16: 115-120.
_____. 1977.「灌頂傳に關する一·二の問題」『天台學報』 19: 144-146.
佐藤哲英. 1961.『天台大師の研究』. 京都: 百華苑.
_____. 1981.『續·天台大師の研究』. 京都: 百華苑.
塩入良道. 1964.「天台義における四諦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12(2): 113-121.
多田孝正. 1982.「地論教學と天台別教」『佛教教理の研究』. 東京: 春秋社.
二宮守人. 1981.「大般涅槃經玄義」『國譯一切經: 和漢撰述部 經疏部11』. 東京: 大東出版社.
平井俊榮. 1976.『中國般若思想史研究』. 東京: 春秋社.
_____. 1985.『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 東京: 春秋社.
藤井教公. 1996.「天台智顗と『勝鬘經』」『インド思想と佛教文化』. 東京: 春秋社.
村上明也. 2024.『章安灌頂の研究』. 京都: 法藏館.
山口弘江. 2017.『天台維摩經疏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山崎宏. 1967.『隋唐佛教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横溝靖彦. 2019.「『四教義』と『維摩經玄疏』『四教分別』の比較研究」『創價大學大學院紀要』 40: 283-303.
若杉見龍. 1981.「法華玄義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棲神』 53: 61-70.
_____. 1987.「智顗教學における塵沙惑の研究」『佛教史佛教學論集: 野村耀昌博士古稀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www.kci.go.kr

| Abstract |

Two Aspects of the Doctrine of the Four Kinds of the Four Noble Truths

Lee Jaeyun
(Doctor of Arts,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 Kinds of the Four Noble Truths (四種四諦) between the Three Major Commentaries of the Tiantai School (天台三大部) and the Commentaries on the Vimalakīrti Sutra (維摩經疏類). Although both corpora represent the later period of Zhiyi's (智顗, 538-597) works and share a close doctrinal connection, notable discrepancies are evident in terminology, scriptural sources and citations, and—most prominently—in their reception of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勝鬘經) and the doctrinal position of the Śrīmālā school's master (勝鬘師). The Commentaries on the Vimalakīrti Sutra employ multiple alternative designations for the Four Kinds of the Four Noble Truths, draw upon diverse scriptural sources including the *Mahāparinirvāṇa-sūtra* (涅槃經) and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and adopt an integrative and harmonizing stance. By contrast, the Three Major Commentaries standardize and unify terminology, reconstruct the doctrine around the *Mahāparinirvāṇa-sūtra*, and reject both the interpretation in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and the doctrinal position of the Śrīmālā school's master. While the composition of the Commentaries on the Vimalakīrti Sutra (595-597) postdates the lectures underlying the Three Major Commentaries (585-594), all extant versions of the latter were compiled after Zhiyi's death by his disciple Guanding (灌

www.kci.go.kr

頂, 561-632). The close correspondence between Guanding's own writings and the Three Major Commentaries suggests substantial editorial intervention rather than a verbatim record of Zhiyi's original teaching. Consequently, the Commentaries on the Vimalakīrti Sutra should serve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reconstructing Zhiyi's doctrinal intent, with the Three Major Commentaries subjected to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Keywords : Zhiyi, Guanding, Four Kinds of the Four Noble Truths, Three Major Commentaries, Commentaries on the Vimalakīrti Sutra, *Mahāparinirvāṇa-sūtra,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2025년 8월 13일 투고
2025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5년 10월 2일 게재확정

www.kci.go.kr